

중국 출토의서에 보이는 '諸傷'과 전래문헌의 비교 고찰

¹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후 연구원

이 경 *

Comparison of Zhusang Between as Discovered in a Medical Book Excavated in China and Other Classical Books

Lee Kyung *

¹Post-doctoral Researcher at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studies Zhushang, which is the name of a disease found in excavated books. Zhusang is the first disease listed in Wushierbingfang, which is a medical textbook excavated at Mawangdui, and Zhusang was followed by diseases such as Jinshang and Renshang. The paper studies what disease each of the word is referring to in terms of graphonomy, and compared the difference of their treatment from other classical texts.

Methods : The scope of the study of this paper includes the excavated textbooks that seem to contain any disease related to Zhusang, and the two major text books of these are Wushierbingfang and Wuweihandaiyijian. Then Shennongbencao jing, which is the one of the earlier books on herbology, and Bencao gangmu, which was written based on the former, were used to make comparisons. Parts in Donguibogam that seem to be related to the parts in the excavated texts were also compared. The study was done by first performing historical research on the names of the diseases in the excavated books, and compared them with the contents of the classical texts.

Results : The Zhushang discovered in Wushierbingfang refers to wounds caused by metal or wood. It was interesting how they created a word for diseases depending on the cause. Only Jinshang is found in Wuweihandaiyijian, and the fact that different causes gave way to different names tells us that they had corresponding treatment. The categorization of Zhushang, Jinshang, and Renshang is corresponded better in Donguibogam than Chinese medical books.

Keywords : Zhusang(諸傷), Jinshang(金傷), Renshang(外傷), Wushierbingfang(五十二病方), Wuweihandaiyijian(武威漢代醫簡)

* Corresponding author : Lee kyung.

Dept. of Chinese and Chinese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Tel : 010-8753-3727, E-mail : paster0228@naver.com

Received(October 23, 2018), Revised(November 13, 2018), Accepted(November 15,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19세기 이래로 중국에서는 수많은 양의 先秦兩漢 시대 簡帛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출토 문헌'이라고 명명하는데, 출토문헌의 내용은 유가, 법가, 도가뿐만 아니라 의학 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문헌의 원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약 2천년 동안 수없이 가감되고 수정된 것이 아닌 초기의 이론과 체계가 생성되어가는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룰 의학내용도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대 의서는 수량으로 따지면 유가, 도가에 상응할 만큼 매우 방대하다. 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진 동양의학의 시초인 『黃帝內經』, 『傷寒論』이전의 모습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출토 의서를 통하여 이제는 동양의학의 원형과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출토 의서 중 가장 잘 알려진 『五十二病方』속 '諸傷'이라는 질병의 명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명칭의 본 의미는 무엇이고, 이러한 질병에 관하여 『五十二病方』에서는 어떻게 처치하였는지 문자학적으로 분석해본다. 또한 다른 출토의서에서의 비슷한 용례를 찾아 비교하고, 시기적으로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후대로 전해 내려온 의서와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II. 본론

1. '諸傷'의 문자학적 의미

諸傷은 『五十二病方』의 52가지 질병의 항목 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명칭이다. 마왕퇴 의서 정리조의 의견에 따르면 諸傷은 각종 금속류 칼날이나 나무 등에 의한 손상으로 출혈, 감염, 어혈 등이 유발된 상처를 일컫는다고 하였다.¹⁾ 중국 의학자 周一謀와 蕭佐桃는 정리조의 의견에 동의하며 금속류, 죽목 등에 의한 창상과 타박상 같은 류의 모든 병증을 말한다고 하였다.²⁾

1)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五十二病方. 北京. 文物出版社. 1979. p.27.

2)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먼저 명칭에 관하여 살펴보면, 諸자는 '眾', '各個'의 뜻이다. 『說文』에서는 諸를 "辯也."라고 하여 段玉裁가 "辯, 當作辨, 判也."라 설명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이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이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인 『禮記·祭統』을 살펴보면 "夫義者, 所以濟志也, 諸德之發也."라 하였는데, 이 부분의 諸자에 관한 孔穎達의 疏를 보면 "諸, 眾也."라고 하여, '무리', '여럿'의 의미로도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醫史학자인 馬繼興 또한 '多種', '各種'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는 『一切經音義』 24권에서 『倉頡篇』을 인용하여 이르길, "諸, 非一也."라 하였으며, 같은 책에서 『聲類』를 인용하여 이르길, "諸, 詞之總也."라고 한 것을 근거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³⁾ 傷자는 오늘날 '다치다', '상하다', '상처'의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 문자의 자형을 살펴보면 어떠한 증상을 표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출토된 자료를 살펴보면 傷자는 戰國시대 문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楚나라와 秦나라 계통 자료에서 살펴 볼 수 있다.⁴⁾ 傷자는 대부분 '彡'과 '易'자의 조합으로 쓰였으나 여러 자체가 함께 혼용되기도 하였다. 그 중 특기할만한 글자는 다음과 같다.

Table 1. 출토문헌에 보이는 '傷'자

1	2	3	4
			
包2.144	郭.唐.11	包2.22	四2.14老

1의 자형을 보면 음을 나타내는 '易'과 의미를 나

社. 1988. pp.72-73.

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23.

4) 傷자는 楚系 문자에서는 包山楚簡, 郭店楚簡,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등에 보이며, 秦系 문자는 睡虎地秦簡에 보인다. 이 외에 한나라 이후, 당시 발굴된 전국시대 문자들을 모사해 놓은 것을 모아 편찬한 『傳抄古文字編』(徐在國. 綫裝書局. 2006)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형은 彡+易, 易+彡, 易+彡, 彡+易, 彡+易 등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타내는 '戊'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戊'는 갑골문에서 고대 병기(兵器)의 모양을 형상화 한 글자로, 『說文』에서 許慎이 "戊, 中宮也."라고 설명한 것은 그가 갑골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이다.⁵⁾ 2의 자형은 '易'과 '戈'의 조합이다. 戈 또한 고대 병기의 모양을 형상화 한 글자이다.⁶⁾ 3번 자형은 '易'과 '丌'의 조합이다. 이 글자와 관련하여 『說文』에서는 "傷, 創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段玉裁는 注에 이르길 "刃部曰刃, 傷也. 二字爲轉注."라 하였다. 이를 통해 傷과 創, 刃자는 서로 통하고 創자의 丌部는 칼, 칼날, 모든 병기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번 자형은 '矢'와 '傷'자의 조합이다. 종합하면, 傷자의 고문자형은 음을 나타내는 易, 傷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각종 무기, 칼을 의미하는 글자들과 조합되어 있다. 이해보아 오늘날엔 비록 '다치다', '상하다'의 의미로만 쓰이지만, 상처의 요인은 모두 날카로운 둔기나 칼, 화살 등의 금속성 물질(혹은 상응하는 물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문자학자 김경일은 『상한론: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에서 傷자의 '丌'은 사람을 뜻하고, '易'은 비록 음을 나타내지만 '햇빛', '따뜻한 기운'과 관계 있는 글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상이 아닌 체온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체적 불균형, 즉 내적 요인으로 인한 상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⁷⁾ 반면 외부의 상처를 나타내는 글자로는 疾자를 제시하였는데, 갑골문에서 옆구리에 화살을 맞은 모양을 형상화한 疾⁸⁾ 『合集21054』 자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疾자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땀을 흘리며 앓는 형상인 疾⁹⁾ 『合集440正』 모양으로 쓰였으며, 『合集21054』의 자형은 과거 유력 학자들이 疾자로 보기는 했으나 '빠르다', '급하다'의 의미로 쓰여 질병과 무관하다.⁸⁾ 현재 중국 바이두 백과(百度百科)

에서 『상한론』이라는 책을 검색하면 "闡述外感病治療規律的專著"라 하여 외감(外感)을 원인으로 하는 병의 규율과 치료를 논한 전문 저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⁹⁾ 『상한론』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이와 비슷한데, 장중경은 서(序)에서 그의 일가는 인원이 200명에 가까웠으나 상한으로 인하여 죽은 이가 열에 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⁰⁾ 여기서 그의 일가를 몰락시킨 상한이라는 병을 문맥으로 추측하여 급성 열병 혹은 온역(瘟疫) 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 치료에 상한론을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김경일의 설에 따라 傷이란 글자가 과연 내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표현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중국 고서에서 傷이 쓰인 용례이다. 전래 문헌 속 문자의 용례를 찾아보면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左傳·襄公十七年』을 보면 "以杖扶其傷而死."¹¹⁾라 하여 말뚝, 즉 나무로 된 뽕죽한 물건으로 상처를 크게 덧나게 하여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左傳·成公二年』에는 "郤克傷於矢, 流血及屨, 未絕鼓音."¹²⁾라 하여 극극(郤克)이 화살에 맞아 신발이 젖도록 많은 피를 흘렸으나 복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한다. 『史記·吳太伯世家』를 보면, "越因伐吳, 敗之姑蘇, 傷吳王闔廬指, 軍卻七里. 吳王病傷而死."¹³⁾라 기록하였는데, 오나라

5)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3. p.1552.

6)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戈' : 『合集775正』 『集成6606·戈』; 『合集27931』 『集成1706·司』

7) 김경일, 노영범. 상한론: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바다출판사. 2015. pp.34-36, 451-481.

8)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7). 上海教育出版社. 2004. p.17.

9) 百度百科 DB. Available from:

<https://baike.baidu.com/item/%E4%BC%A4%E5%AF%92%E8%AE%BA>

10) 楊醫亞. 醫古文.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pp.21-22. "余宗族素多, 向餘二百. 建安紀年以來, 猶未十稔,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 感往昔之淪喪, 傷橫夭之莫救, 乃勤求古訓, 博采衆方, 撰用『素問』, 『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產藥錄』, 并平脈辨證, 爲『傷寒雜病論』, 合十六卷."

11) 諸子百家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Available from: <https://ctext.org/pre-qin-and-han/zh?searchu=%E4%B7%A5%E6%9D%99%E6%8A%89%E5%85%B6%E5%82%B7%E8%80%8C%E6%AD%BB>

12) 諸子百家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Available from: <https://ctext.org/pre-qin-and-han/zh?searchu=%E9%83%A4%E5%85%8B&page=2>

13) 諸子百家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Available from: <https://ctext.org/pre-qin-and-han/zh?searchu=%E8%B6%8A%E5%9B%A0%E4%BC%90%E5%90%B3>

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1) 犬窠(噬)人傷者: 取丘(蚯)引(蚓)矢二□, 以井上(糞)糞(斷)處土與等, 并熬之, 而以美醢【□□□□】之, 稍堍(丸), 以尉(熨)其傷. 犬毛盡, 傳傷而已(已). (馬·五十二病方61-62)

개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蚯蚓矢(지렁이 배설물)와 우물 바닥에서 퍼 올린 흙을 같은 배합으로 섞어 가열한 것과 醢(식초, 식혜, 술과 같은 발효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뜸 치료를 하거나 개의 털을 뽑아 태워 상처에 바르라고 되어있다. 이와 비슷한 치료법은 『證類本草』卷22에 인용된 『新脩本草』의 주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렁이 배설물로 미친개에게 물린 상처를 덮고, 개의 털을 뽑으면 낫는다. 큰 효험이 있다."라고 하였다.¹⁹⁾ 치료법은 3-1)에서 쓰인 약재와 동일하나 '개의 털을 뽑는다는 것'은 약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한 대상에게 동일하게 수술적인 해를 가함으로써 치유가 되길 바랐던 것이다. 반면 3-1)에서 '개의 털을 그슬러' 이용하는 치료법은 동종요법(同種療法)²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3)의 예문과 동일한 방식의 치료법이다.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는 그러한 무기를 쓰고 다루는 주체인 인간의 모발(髮)로, 개에게 물린 상처는 개의 털(犬毛)로 치유한 것이다. 이러한 치료법은 고대인의 유심론(唯心論)적 사유 체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4) 一, 令傷者毋(無)痛, 毋(無)血出, 取故蒲席(厭)□□【□】燔【□□□】疔(疔). (馬·五十二病方12)

4)는 외상 시, 통증과 출혈을 막아주는 것에 대한 치료법이다. 소실된 글자가 많아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용례 속 '故蒲席厭'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故蒲席'에 대해 마왕퇴 정리조는 '敗蒲席'이라고 고석하였다.²¹⁾ 『本草綱目』에 敗蒲席의 기록이 보이는데 『名醫別錄』을 인용하여 "主筋溢惡瘡.(살에 악창이 퍼진 것을 치료한다.)"라 기록하였다. 또한 "單用破血"이라 하여 어혈을 없애는데 쓰인다고 기록하였다.²²⁾ 이로 보아 敗蒲席은 상처의 어혈을 풀어주고 살점을 빠르게 치유하기 위한 약재이다. 또한 4)의 처방대로 지혈과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주요할 것이다.

5) 一, 令傷毋(無)般(癢), 取(鼠)膏(膏), □衍并治, 傅之. (馬·五十二病方14)

5)는 상처가 아문 뒤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하는 치료법이다. 돼지기름(鼠膏)과 어떤 재료(□)를 섞어 바른다고 되어 있다. 『本草綱目』에서 癩痕(흉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豬脂三斤, 飼烏雞, 取尿白, 入白芷, 當歸煎, 去滓, 入鷹屎白, 傅之."²³⁾라 하여 돼지기름(豬脂)을 쓰는 것으로 나와 있다.

6) 一, 金傷者, 以方(肪)膏、烏豕(喙)【□□】, 皆相□煎, 銳(施)之. (馬·五十二病方16)

6)은 金傷에 관한 처방이다. '肪膏', '烏喙'가 주재료로 나와 있는데, '肪膏'는 동물의 유지를 뜻하고 '烏喙'는 '草烏頭'를 말한다. 진통을 마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²⁴⁾ 『本草綱目』에서는 "主惡風憎寒, 冷痰包心, 腸腹疔痛, 痲癩氣塊, 齒痛..."이라 하여 惡風과 惡寒, 가슴에 차가운 痰으로 멎친 경우,

19) 裘錫圭主編, 湖南省博物館,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5). 中華書局. 2014. p.226. "『證類本草』卷22引『新脩本草』注謂蚯蚓屎'封狂犬傷, 出犬毛. 神效', 與本方相似."

20) 오늘날 의학계에서 알고 있는 동종요법(同種療法)은 1796년 독일의 새무엘 하네만(Samuel Hahnemann)이 창안한 것으로, 인체에 질병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치료하는 원리이다. 치료기전은 다르지만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 위와 같은 치료법은 보다 원시적인 형태의 동종요법이라고 볼 수 있다.

21) 馬王堆漢墓簡帛書整理小組編. 五十二病方. 文物出版社. 1979. p.30. "故蒲席, 即敗蒲席. 『名醫別錄』: 敗蒲席, 平, 主筋溢惡瘡."

22) 李時珍. 金陵本 本草綱目.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p.1172.

23) 李時珍. 金陵本 本草綱目.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p.190.

24) 馬王堆漢墓簡帛書整理小組編. 五十二病方. 文物出版社. 1979. p.31.

배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는 경우, 痲癬으로 기가 면친 경우, 치통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고 되어있다.²⁵⁾ 다음의 7)은 외상에 관한 일반적인 치료법인데 약재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어 살펴본다.

7) 一, 傷者, 以續斷根(斷)根一把, 獨長支(枝)者二廷(挺), 黃芩(芩)二挺, 甘草【□】廷(挺), 秋烏喙(喙)二□【□□】□者二甌, 即并煎【□】孰(熟), 以布捉, 取出其汁, 以陳縹【□】傅之。(馬·五十二病方17-18)

예문 속에 쓰인 약재는 '續斷根', '□長枝', '黃芩', '甘草', '烏喙'이다. '續斷'은 『神農本草經』에 '金瘡', '癰傷', '折跌', '續筋骨'을 주로 치료한다고 나온다.²⁶⁾ '黃芩' 또한 '惡創'에 효험이 있다고 하였고,²⁷⁾ '甘草'는 '金創'의 치료에 쓰이며 '堅筋骨', '長肌肉', '倍力'와 같이 근골을 강화시키고 살점을 채워주며 힘을 돋운다고 하였다.²⁸⁾ '烏喙'는 위의 6)의 배합에도 제시되어 있다.

8) 一, 久傷者, 齋(齋)杏癭(核)中人(仁), 以職(職)膏弁, 封瘡, 虫(蟲)即出。(馬·五十二病方21)

8)은 오래된 상처에 관한 치료법이다. 주요 약재로는 '杏核中仁', '職膏'이다. '杏核中仁'은 '杏核仁'인데 『神農本草經』에서 '金創'의 치료에 쓰인다고 나와 있다.²⁹⁾ 즉, '杏核仁'을 분쇄(齋)하여 찰진 기름(職膏)과 섞어 바르면 벌레(蟲)가 나오면서 치료가 된다고 하였다. 특이한 것은 '蟲即出'인데 상처가 오래

되어 굵으면서 벌레가 생기는 것은 당시의 환경과 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빈번했을 것이다. 혹은 벌레가 상처를 갉아먹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나오게 하는 것이 상처 치유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한 예로, 『五十二病方』중 '螟'이라는 질병의 기록이 있는데 본 뜻은 '곡물의 중심부를 파먹는 벌레(穀物的食心蟲)'이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1) 冥(螟)病方: 冥(螟)者, 蟲所齧穿者□, 其所發母恒處, 或在鼻, 或在口旁, 或齒齦, 或在手指【□】(馬·五十二病方134)

'螟'이란 질병은 벌레가 코나 입, 치아, 잇몸, 손가락 등을 갉아먹어 성한 곳이 없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필자는 이를 '한센병'이라 결론지었는데, 당시에는 상처가 굵거나 썩고, 이로 인해 신체가 서서히 손상되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³⁰⁾ 8)의 오래된 상처의 벌레를 처치하려는 방법과 '한센병'에 대한 인식은 치유에 관하여 실제와 상상이 부합된 고대인들의 특징적 사유 체계라고 볼 수 있다.

9) 一, 令金傷毋(無)痛方: 取鼯鼠, 乾而治; 取鮫(鮫)魚, 燔而治; 長石、薪(辛)夷、甘草各【鼯】鼠等, 皆合撓, 取三指(撮)一, 入溫酒一(杯)中而飲(飲)之. 不可, 財益藥, 至不癰(痛)而止。(馬·五十二病方23-24)

9)는 금속류에 의한 상처에 통증이 없도록 하는 처방이다. 주요 약재는 '鼯鼠', '鮫魚', '長石', '辛夷', '甘草'이다. '鼯鼠'는 『本草綱目』에 '鼯鼠'로 나와 있다. 『名醫別錄』을 인용하여 이르길鼯鼠를 태워서 쓰면 '癰疽', '瘰癧惡瘡', '陰爛瘡'을 치료할 수 있고 혈액이 통하지 않아癰疽로 면치는 것에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³¹⁾ '鮫魚'는 『名醫別錄』에 보이는 '鮫魚'

25) 李時珍. 金陵本 本草綱目.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p.649.

26)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70. "味苦, 微溫. 主傷寒, 補不足, 金瘡, 癰傷, 折跌, 續筋骨..."

27)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180. "味苦, 平. 主諸熱黃膽, 腸泄利, 逐水, 下血閉, 惡創, 恒蝕火瘍." 孫. 王輯本

28)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28. "味甘, 平. 主五藏六府寒熱邪氣, 堅筋骨, 長肌肉, 倍力, 金創, 解毒."

29)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358. "味甘, 溫. 主咳逆上氣, 雷鳴, 喉痺下氣, 產乳, 金創, 寒心, 賁豚"

30) 李璟. 戰國秦漢簡帛所見病症名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7. p.62.

31) 李時珍. 金陵本 本草綱目. University of California

로 판단된다. '僂'자와 '鯁'자는 음이 둘 다 脂部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통한다.³²⁾ 『本草綱目』에서는 『千金翼方』을 인용하여 이르길, 鯁魚의 '目'은 자상시 물이 들어갔을 때의 통증(刺傷中水作痛)을 치료한다고 하여 본 처방과 연관성이 있다.³³⁾ 마왕퇴 백서의 '長石' 부분은 잔획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았었다. 북경대학교에서 소장한 漢나라 醫簡 중 9)와 같은 상처의 처방(治令金傷毋痛方)이 보이는데, 여기서 사용된 약재가 '長石' '辛夷', '甘草'로, 이 부분을 근거로 보충되었다.³⁴⁾ 長石은 『神農本草經』에 이르길 몸의 열(身熱), 사지가 차고 뻣뻣한 것(四肢寒厥)을 치료하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한다(通血脈)고 하였다.³⁵⁾ '辛夷'는 『神農本草經』에 이르길 "主五臟身體寒風, 頭腦痛, 面黤. 久服下氣, 輕身, 明目, 增年耐老."라며 오장과 신체에 한풍(寒風)이 든 것을 치료하고, 두통과 기미에 효험이 있으며, 장기 복용하면 기를 내리고 몸이 가벼워지며, 눈이 좋아지고 늙지 않는다고 하였다.³⁶⁾

다음은 武威漢代醫簡에 보이는 金傷에 관한 기록이다. 武威漢代醫簡은 1972년 甘肅省 武威縣에서 발견된 漢나라 묘에서 나온 簡牘이다. 수량은 92枚로, 당시 쓰인 의약품만 아니라 方劑學, 針灸, 推拿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五十二病方』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비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 다루는 諸傷이라는 명칭은 武

咸漢代醫簡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하부에 속하는 金傷에 대한 치료법이 대략 6가지 보이는데, 그 중 특기할만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10) 治金創止患(痛), 令創中溫方: 曾青一分, 長石二分, 凡二物皆治合和溫酒, 飲一刀日三, 創立不患(痛). (武威13)

10)은 예문 9)의 '令金傷毋(無)痛方'과 같이 통증을 없애주는 처방이나, 상처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첨가되었다. 9)에서 '長石' 부분은 원래 소실되었으나 北大醫簡을 통해 보충되었는데, 武威醫簡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쓰인 약재는 '曾青'과 '長石', '溫酒'이다. 曾青은 『神農本草經』에 관절을 이롭게 하고 눈의 통증이나 눈물이 흐르는 것, 風痺 등을 치료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였다.³⁸⁾ 長石은 앞의 용례 (9)에서 설명하였다.

11) 治金創止患(痛)方: 石膏一分, 姜(薑)二分, 甘草一分, 桂一分, 凡四物皆治合, 和, 以方寸寸³⁹⁾, 酢漿⁴⁰⁾飲之. 日再夜一, 良甚, 勿傳也. (武威52-53)

11) 또한 金創이 생겼을 시 통증을 없애주는 처방이다. 여기서는 '石膏', '薑', '甘草', '桂'가 약재로 쓰였다. 石膏는 『神農本草經』에 보인다. 金創에 주로 쓰이는 약재이다.⁴¹⁾ '薑'은 『本草綱目』에서 五臟에 들은 風邪와 寒熱, 傷寒으로 인한 증상들, 기가 멎어 있는 증상이나 각종 계절병을 치료하고, 사시

Press. 2016. p.1473. "燔之, 療癰疽, 諸瘻蝕惡瘡, 陰爛瘡... 血脈不行, 結成癰疽, 可消."
32)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五十二病方. 文物出版社. 1979. p.34. "疑即『名醫別錄』鯁魚, 僂, 鯁, 古脂部字, 音近相通."
33)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460-2461. 校勘注에 이르길 『千金翼方』에는 '刺傷中'과 '水作痛'자 사이 '風'자가 있다고 하였다.
34) 裘錫圭主編, 湖南省博物館,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五). 中華書局. 2014. p.219-220. "此處從北大醫簡'治令金傷毋痛方'用到'長石、薪(辛)夷、甘草'三味藥, 結合帛書殘存筆劃, 所殘二字必爲'長石'無疑."
35)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159. "味辛, 寒, 主身熱, 四肢寒厥, 利小便, 通血脈, 明目, 去翳眇, 下三虫, 殺蠱毒. 久服, 不飢. 一名方石. 生山谷."
36)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110. "味辛, 溫, 主五臟身體寒風, 頭腦痛, 面黤. 久服下氣, 輕身, 明目, 增年耐老."

37) 원문 및 고석은 張延昌. 武威漢代醫簡注解. 中醫古籍出版社. 2006.을 따랐다.
38)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17. "味酸, 小寒. 主目痛, 止淚出, 風痺, 利關節, 通九竅, 破症堅積聚. 久服輕身能化金, 銅. 生山谷."
39) 張延昌. 武威漢代醫簡注解. 中醫古籍出版社. 2006. p.125. "方寸寸, 當爲方寸匕."
40) 張延昌. 武威漢代醫簡注解. 中醫古籍出版社. 2006. p.125. "酢漿即醋. 『說文』'酢, 醃也. 醃, 酢漿也."
41)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152. "味辛, 微寒. 主中風寒熱, 心下逆氣驚喘, 口乾舌焦, 不能息, 腹中堅痛, 除邪鬼, 產乳. 金創. 生山谷."

사철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약재료로 나와 있다.⁴²⁾ '桂'는 '牡桂'를 말하는 것 같다. 『神農本草經』에 이르길 관절을 이롭게 하고 기를 보하고 장기 복용하면 몸이 가볍고 늙지 않는다고 한 것⁴³⁾으로 보아 '曾青', '薑'과 효능이 통하는 것 같다.

12) 治金創腸(腸)出方: 治龍骨三指口, 和以鼓汁飲之. □□□禁□□□□. (武威14)

위의 용례는 칼에 베었을 시 장이 튀어나왔을 경우의 치료법이다. 주요 약재로는 '龍骨'과 '鼓汁'이 쓰였고 이 둘을 섞어 마신다고 하였다. 龍骨은 전간이나 가슴 밑으로 기가 뭉쳤을 경우, 숨을 쉴 수 없는 경우 등에 쓴다.⁴⁴⁾ '鼓汁'의 '鼓'는 '豉'를 잘못 쓴 것 같다. 張延昌은 '豆豉汁'이라고 하였다.⁴⁵⁾ 豆豉汁이란 오늘날에도 쓰이는 음식 재료인데 콩을 청국장처럼 발효시켜 말린 것을 즙으로 만든 것이다. 용례의 마지막 소실된 부분에 관하여 陳國淸은 禁 앞의 세 글자를 보충하였는데, "□□□禁"은 "腸自入, 禁"이라고 하였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처방을 통해 장이 저절로 들어가면, 약을 그만 쓰거나 혹은 무언가를 금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⁶⁾

13) 治金腸(腸)出方: 龍骨三指撮, 以鼓汁飲之, 日再三飲, 腸(腸)自爲入, 大良, 勿傳也. (武威54)

42) 李時珍. 金陵本草綱目.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p.865. "久服去臭氣, 通神明. 歸五臟, 除風邪寒熱, 傷寒頭痛鼻塞, 咳逆上氣, 止嘔吐, 去痰下氣, 去水氣滿, 療咳嗽時疾. 和半夏, 主心下急痛. 和杏仁作煎, 下急痛氣實, 心胸擁隔冷熱氣, 神效. 搗汁和蜜服, 治中熱嘔逆不能下食."

43)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100. "味辛, 溫, 主上氣咳逆, 結氣, 喉痺吐吸, 利關節, 補中益氣. 久服通神, 輕身, 不老."

44)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119. "味甘, 平. 主心腹鬼注, 精物老魅, 咳逆, 泄利膿血, 女子漏下症瘕堅結, 小兒熱氣驚癇. 齒: 主小兒大人驚癇疾狂走, 心下結氣, 不能喘息, 諸瘕, 殺精物. 久服, 輕身, 通神明, 延年." 원문에는 龍齒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였으나 동종 약재로 판단하였다.

45) 張延昌. 武威漢代醫簡注解. 中醫古籍出版社. 2006. p.117. "鼓, 即豉之訛. 鼓汁應爲豆豉汁."

46) 陳國淸. 武威漢代醫簡釋文再補正. 考古與文物. 1990(4). p.91.

13) 또한 무언가에 베여 장이 튀어나왔을 경우의 처방이다. 12)에서 쓰인 약재와 치료방법이 동일하다. 다음은 金創을 입었는데 안에서 피가 세고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의 처방이다.

14) 治金創內漏血不出方: 藥用大黃二分, 曾青二分, 消石二分, 麤蟲三分, 虻(虻)頭二分, 凡五物皆治合, 和, 以方寸匕一, 酒飲. 不過, 再飲, 血立出, 不即從大便出. (武威50)

쓰인 주 재료는 '大黃', '曾青', '消石', '麤蟲', '虻'이다. '大黃'은 『神農本草經』에 보이는데, 어혈을 풀어주고 적취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본 처방과 들어 맞는다.⁴⁷⁾ '消石'은 『本經疏證』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五臟에 쌓인 열을 치료하고 위나 장이 막힌 것을 풀어준다고 하였다. 또한 邪氣를 제거하는데 주효하다.⁴⁸⁾ '麤蟲'은 『本草綱目』에 이르길 血積癥瘕, 下血閉 등에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⁴⁹⁾ '虻'에 관하여 『神農本草經』에는 '木虻'과 '蜚虻'이 있는데 둘 다 어혈을 풀어주고 血積을 없애준다.⁵⁰⁾

위의 용례들을 살펴본 결과, 『五十二病方』은 諸傷으로 금속류나 竹木 등 날카로운 것에 의한 외상의 처방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竹木에 의한 상처는 따로 명칭을 만들지 않았고 금속류에 의한 것만 刀傷, 金傷 등으로 표기하였다. 반면에 武威漢代醫簡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증상의 처방이 등장하는데 '金腸(腸)出'이나 '金創內漏血不出' 등이다. 『五十二病方』은 대략 戰國時期的 것으로 추정하고, 武威漢代

47)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275. "味苦, 寒. 主下瘀血, 血閉, 寒熱, 破症瘕積聚, 留飲宿食, 蕩滌腸胃, 推陳致新, 通利水殺, 調中化食, 安和五臟, 生山谷."

48) 中醫世家 DB. Available from: <http://www.zysj.com.cn/so.php?keyword=%E6%B6%88%E7%9F%B3+%E6%9C%AC%E7%BB%8F%E7%96%8F%E8%AF%81> "味苦 辛, 寒 大寒, 無毒. 主五臟積熱, 胃脘閉, 滌去蓄結飲食, 推陳致新, 除邪氣. 療五臟十二經脈中百二十疾, 暴傷寒, 腹中大熱, 止煩滿消渴, 利小便及瘦蝕瘡. 鍊之如膏, 久服輕身."

49)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323.

50)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2014. p.247. "木虻, 傷淚出, 瘀血血閉, 寒熱酸.", "蜚虻, 味苦, 微寒. 主逐瘀血, 破下血積, 堅痞瘕瘕, 寒熱, 通利血脈及九竅. 生山谷."

醫簡은 東漢시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⁵¹⁾ 증상이나 처방이 후대로 갈수록 세분화하여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전래문헌 속 '諸傷'

앞의 출토문헌에서 諸傷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질병의 명칭들은 후대로 전해 내려온 전래문헌 속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는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에 보인다. 여기서는 모든 질병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房室', '金刃', '蟲獸'에 의한 손상이라고 하였다. 금속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짐승 류에 의한 상해가 나온다.⁵²⁾ 이후 『神農本草經』에서 '金創'이라는 명칭으로 쓰여 이들을 치료하는 약재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앞의 본문에서 소개되었으므로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다. 이를 토대로 쓰여진 『本草綱目』에서는 主治편에서 '金(금속), 鏃(화살촉), 竹(대나무), 木(나무)傷'을 명기하고, 이를 치료하는 갖가지 약재와 쓰는 방법들이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⁵³⁾ 반면, '諸傷'이라는 명칭은 『五十二病方』에 출현한 이후, 武威漢代醫簡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후 唐나라 시기 저작인 『備急千金要方』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當歸散'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治落馬墮車, 諸傷腕折臂脚痛不止方." 즉, 말이나 마차, 수레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거나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통증이 멈추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⁵⁴⁾ 여기서 諸傷은 단순 상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토문헌보다 의미가 비교적 협소하게 변했다. 명나라 문헌인 『證治準繩·雜病』에서는 '諸傷門'이라는 항목을 두었으나 외상의 종류가 아닌 '傷暑', '傷濕', '傷燥', '傷飲食' 등 주로 날씨나 기운 같은 무형적 요인으로 인한 손상을 나열하였다.⁵⁵⁾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東醫寶鑑·雜病篇』에도 '諸傷'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는데, 밑으로 '金刃傷', '腸肚傷', '箭鏃及金刃中骨脈不出', '骨折筋斷傷', '杖傷', '諸獸傷' 등 여러 종류의 외상 처치법을 소개하고 있다. 항목의 분류나 이에 포함된 증상의 종류를 따지자면 『東醫寶鑑』이 중국의 전래의서보다 『五十二病方』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이상으로 출토문헌 『五十二病方』속 諸傷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諸傷은 문자학적으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외부의 손상'을 의미하며, 금속류에 의한 상처는 특별히 '金傷', '刃傷'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이들은 또한 武威漢代醫簡에도 보이는데, 약재나 증상의 명칭에서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은 있었으나 완전히 동일하진 않았다. 오히려 武威漢代醫簡의 증상의 명칭이 비교적 세부적이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후대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전래문헌에서 '諸傷'이나 이들의 부속 명칭인 '金傷', '刃傷' 등은 『神農本草經』, 『本草綱目』, 『備急千金要方』, 『政治準繩』, 『東醫寶鑑』 등에 나오는데 약학서적을 제외한 의서에서는 『東醫寶鑑』이 유일하게 『五十二病方』과 항목과 증상의 분류가 동일하였다.

References

1. Guwenzigulin compilation committee. Guwenzigulin(7). Shanghai Educational Publishing house. 2004.

51) 駢字窩, 段書安. 二十世紀出土簡帛綜述. 文物出版社. 2006. p.398, 410.

52) 諸子百家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Available from: <https://ctext.org/pre-qin-and-han/zh?searchu=%E9%87%91%E5%88%83> "夫人稟五常, 因風氣而生長. 風氣雖能生萬物, 亦能害萬物, 如水能浮舟, 亦能覆舟. 若五藏元真通暢, 人即安和, 客氣邪風, 中人多死. 千般疾難, 不越三條. 一者, 經絡受邪入藏府, 爲內所因也. 二者, 四肢九竅, 血脈相傳, 壅塞不通, 爲外皮膚所中也. 三者, 房室金刃蟲獸所傷. 以此詳之, 病由都盡."

53)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42-345.

54) 中國의학경전(中醫世家) DB. Available from: <http://www.zysj.com.cn/lilunshuji/beijiqianjinyaofang549/221-28-3.html>

55) 中國의학경전(中醫世家) DB. Available from: <http://www.zysj.com.cn/lilunshuji/zhengzhizhunshengzabing/>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7). 上海教育出版社. 2004.
2. Qiu XG, Hu-nan national museum, Fudan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ancient Chinese characters. bamboo slips in Han Dynasty tomb in Mawangdui, Changsha. Zhonghua Press. 2014.
裘錫圭主編, 湖南省博物館,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中華書局. 2014.
3. Kim KI, Noh YB. Sanghanlun. Badabooks Publishing Co. 2015.
김경일, 노영범. 상한론: 고문자적 번역과 해석. 바다출판사. 2015.
4. Pian YQ, Duan SA. Description about Manuscripts of bamboo and silk in twentieth Century. Wenwu Press. 2006.
駢宇騫, 段書安. 二十世紀出土簡帛綜述. 文物出版社. 2006.
5. Mawangdui research committee. Wushi`er-bingfang. Beijing. Wenwu press. 1979.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五十二病方. 北京. 文物出版社. 1979.
6. Ma JX. Interpretation of Mawangdui Medical books. Hunan Kexuejishu Press. 199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7. Xu ZS. The Oracle inscription dictionary. Sichuan cishu press. 2003.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3.
8. Yang YY. Yiguwen. Hebei kexuejishu press. 1996.
楊醫亞. 醫古文.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9. Li SZ.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Renmin weisheng press. 1982.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82.
10. Zhang YC. Annotation and interpretation of Wuwei medical bamboo slips. 2006.
張延昌. 武威漢代醫簡注解. 中醫古籍出版社. 2006.
11. Zhou YM. Su ZT. The research and annotation of Mawangdui medical script. Tianjin press. 1988.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12. Lee K. The study of the disease names in the excavated texts written in Pre-Qin and Han dynasty. Fudan Univ doctoral dissertation. 2017.
李璟. 戰國秦漢簡帛所見病症名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7.
13. Chen GQ. Interpretation and correction about Wuwei Han Dynasty medical script. Archaeology and Cultural Relics. 1990(4).
陳國清. 武威漢代醫簡釋文再補正. 考古與文物. 1990(4).
14. Li SZ. Compendium of Materia Medica(Jinling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李時珍. 金陵本 本草綱目.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15. Shennong. Shennong Ben Cao Jing(Sunxingyan edition). Suxuehan press. 2014.
神農. 孫星衍輯校本 神農本草經. 朔雪寒. 2014.
16. Chinese medical classics(中醫世家) DB. Available from: <http://www.zysj.com.cn/>
17. Chinese philosophical classics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DB. Available from: <https://ctext.org/zh>
18. Baidu encyclopedia(百度百科) DB. Available from: <https://baike.baidu.com/>